



조간 제7925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음력 7월 24일)

애플망고 재배 ‘올인’...섬 농업 새로운 가능성 열다

사람사는 이야기

이 민 석 오리팜 대표

섬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자연과 매일 맞서는 일이다. 바람, 습도, 토양, 바다까지 모든 변수가 농부의 손끝에 얹혀 있다. 신안군 안좌도에서 벼농사와 함께 애플망고를 재배하는 청년농부 이민석씨(43)는 그 변수들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섬에서는 드문 열대과일 재배를 현실로 만들었다. 매뉴얼도 전례도 없던 길이었지만 그는 해풍과 일조량이라는 섬의 강점을 믿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했다. 애플망고로 신안 농업의 미래를 열겠다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의 삶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민석 오리팜 대표는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 하우스 임대 같은 실질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직접 키운 애플망고를 소개 하고 있는 모습.

올해 3년째 신안 안좌도서 1500㎡ 규모 애플망고 농장 운영
따뜻한 해풍·풍부한 일조량 장점...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장기 하우스 임대 등 실질적 지원 필요...지속 가능 정책 절실

귀농 초기 이씨가 가장 익숙했던 건 벼농사였다. 부모 세대부터 이어온 유기농 재배는 이미 지역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고, 전량 계약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도 확보됐다. 하지만 쌀 소비는 매년 줄었고,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였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정까지 겹치자 벼농사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농업을 지속하려면 기존 방식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무렵, 그에게 전환점을 안겨준 건 우연한 경험이었다. 국내산 애플망고 한 조각을 맛본 순간이었다. 부드럽게 녹는 식감과 향긋한 단맛은 강렬했다. 이씨는 “신안에서도 이런 과일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마침 신안군이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품목이 애플망고였다. 이씨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이 선택이 그의 농업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다. 하우스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꽃이 피면 수정 작업을 직접 돕고, 병해충을 막는 과정까지 하루하루가 도전이었다. 국내에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해외 농업 서적과 자료를 참고하며 하나씩 확인해야 했다.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도 현장 조건이 달라 시행착오가 반복됐다. 그는 실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후속 작업의 기준을 만들었고, 결국 자신만의 재배 매뉴얼을 완성해갔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신안 안좌도의 숨은 장점을 발견했다. 따뜻한 해풍은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줬고, 풍부한 일조량은 당도와 색을 끌어올렸다. 병해충 발생도 상대적으로 적어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는 토양 배합을 달리해 화분재배 방식을 도입했다. 마사토와 원예용 상토를 혼합해 뿌리 활착을 돕고, 뿌리 질병을 최소화했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망고는 신선함과 품미 면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섬의 조건이 언제나 장점만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난관은 물이었다. 암반을 깊게 파면 바닷물과 섞인 염분이 검출돼 재배에 부적합했고, 직접 원수 분석을 해도 결과는 같았다. 결국 인근 농가의 지하수를 끌어다 쓰며 생산을 이어갔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처리 설비와 빗물 저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

기상 이변도 속제였다. 태풍이나 폭우는 순식간에 하우스 시설을 무너뜨렸고, 복구에는 큰 비용이 들었다. 그는 시설 보강을 상시 과제로 삼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동·포장·냉장 시스템도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

물류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섬에서 육지로 운송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신선도 유지에도 관리가 필요했다. 그는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삼고자 했다. “섬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면, 오히려 그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됩니다. 품질과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면 소비자는 특별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농장의 이름에는 그의 각오가 담겼다. 이씨의 사업장 상호 ‘오리팜’은 두 딸 아린과 체린의 이름에서 따왔지만 단순한 가족의 표식에 그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O’와 ‘린’을 합친 발음은 듣기 좋을 뿐 아니라, 애플망고에 ‘올인(All-in)’ 하겠다는 그의 다짐도 담겨 있다.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책임감이 더 커지고, 올인한다는 뜻을 담으니 각오를 늘 되새기게 됩니다.” 그는 오리팜

이름을 통해 농업 철학과 가족의 의미를 함께 붙잡았다.

현재 그의 애플망고 재배 면적은 약 1500㎡ 규모다. 벼농사와 병행하고 있지만 점차 망고의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국내산 애플망고는 kg당 2만5000~3만원 선에서 거래되며 프리미엄 선물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첫 상업적 수확에서 그는 벼농사보다 높은 수익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다만 그는 생산량 확대보다는 품질의 일관성을 우선시한다. 착과 조절, 수확 시기 분산, 후숙 관리 같은 세세한 과정이 소비자 만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판로 전략은 쌀과 달랐다. 유기농 쌀은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지만 애플망고는 직거래와 지인 판매로 시작해 온라인 판매망을 준비 중이다. 그는 판매 자체보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중시한다. 온라인 판매는 농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재배 과정과 환경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다. 포장에는 산지 정보와 보관법, 후속 팀까지 적어 소비자가 과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의 계획은 더 멀리 향한다. 단순 생산 확대를 넘어 잼·건조 과일 같은 가공품 개발을 준비하고, 농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공품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 프로그램은 안좌도의 자연과 연결돼 관광 자원으로 확장된다. 이씨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라며 자신있게 답했다.

하지만 이씨와 같은 청년농부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교통·의료·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은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초기 자본 부담도 크다. 그는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도전하려면 장기 하우스 임대 같은 실질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지역과의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 귀농 초기부터 어르신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고, 청년농부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과 판로 정보를 공유했다. SNS 공동 홍보와 워크숍은 섬 농업의 고립을 깨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는 이를 “함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이씨의 목표는 단순한 과일 재배가 아니다. 앞으로 농장 체험과 가공, 관광까지 확장해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애플망고를 신안의 대표 과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후배 청년농부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농업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귀농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멘토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민석씨에게 애플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섬의 기후와 농부의 시간이 빚어낸 결과물이자, 신안 농업이 나아갈 새 방향이다. 하우스 속 과일들은 오늘날 해풍과 햇살을 머금고 천천히 익어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애플망고는 우리 가족의 꿈이고, 신안의 미래입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